

이바라역과 이바라 데님 스토어

데님의 땅: 이바라역

이바라역에 도착하면 이바라의 문화 아이콘인 활과 데님을 만나게 됩니다.

1999년 11월 문을 연 이바라역은 12세기 나스노 요이치가 조각배 위에 걸린 부채를 쏘아 맞힌 활 솜씨에 경의를 나타내는 디자인으로 지어졌습니다. 역 앞 석재 광장에서 보면 철골 곡선이 활의 비대칭적인 커브와 닮아있으며, 솟아오른 유리 원뿔은 활시위에 걸린 화살처럼 중심에서 약간 비껴나 있습니다. 광장 반대쪽에서는 높은 받침대 위에 크고 둥그런 구멍이 뚫린 부채 모양의 석상이 있어 언뜻 보기에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조각상은 나스노 요이치가 쓴 전설의 화살을 연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석상의 반대편 멀리서 서서 역 쪽을 돌아보면 부채의 구멍이 유리 원뿔의 끝에 놓여 멀리 날아가는 화살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 내에는 카페, 기념품 구매 및 자전거 대여 등이 가능한 관광 안내소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이바라 데님 스토어입니다.

데님이 데님이 되기 전

이바라 지역은 에도 시대(1603~1867)에 목화 재배, 직물, 쪽 염색의 중심지로 번성했습니다.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된 메이지 시대(1868~1912)에 들어서자, 베틀은 더 큰 직조기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바라 지역의 공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원단이 만들어졌는데, '빗추코쿠라'라고 불리는 두꺼운 원단은 특히 교복이나 작업복에 쓰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빗추코쿠라 중 우라지로라고 불리는 원단의 경우 뒷면은 희고 앞면만 염색되어 있습니다. 쪽으로 염색하는 경우가 많았고 서양의 데님과 마찬가지로 3×1 능직(트월)이었습니다. 1930년까지 적어도 1개의 직물 회사가 '블루 데님'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판매한 기록이 있는데,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 데님이 다시

일본에 소개되었을 무렵에는 이미 이바라 지역의 직공 대부분이 데님 원단을 생산할 수 있는 기본 기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1970년 무렵에는 일본 국산 데님 청바지의 75%가 이바라 지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바라 데님의 현재

현재 이바라시에는 20곳가량의 데님 원단 생산 관련 회사가 있으며, 그보다 더 많은 수의 현지 공방 및 핸드메이드 잡화점, 양복점에서 데님 원단으로 청바지, 가방, 셔츠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내 거리 곳곳에 지역 경제 면에서 데님이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장식과 표지판 등이 있는데, 아마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은 이바라 데님 스토어일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더메이드 데님 슈트 및 사이즈 수선 등 기성 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바라 데님 스토어는 이바라역 역사 안에서도 눈에 띄는 장소에 자리하고 있는데, 2층에는 이바라 데님의 역사를 소개하는 작은 데님 박물관이 있으며 1층에는 데님 제품 제작의 일부 공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개러지’ 공방이 있습니다.